

2. 삼별초(三別抄) 유적 복원(復元) 되어야 한다²⁶⁾

만약 삼별초(三別抄)의 제주도 항쟁이 없었다면 제주의 역사는 아주 달라졌다고 할 것이다. 그것은 난리가 컸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다. 이 난리가 몰아 온 역사적·문화적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.

문화의 변동기

제주도를 무대로 만 2년에 걸쳐 벌어졌던 삼별초의 투쟁은 제주도에 서는 일찍이 없었던 큰 전투였다. 전설적인 인물 김통정(金通精)의 지휘

26) 『한라일보』(삼각봉), 1992. 10. 16 (금), 논설위원.

아래 전원이 끝까지 항쟁하다가 전멸하고 마는 세계사에 남을 장렬한 전투였다고 할 수 있다.

삼별초(三別抄)의 입도는 고립됐던 섬문화에 고려의 중심문화를 일시에 이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가 초래한 몽고의 백년 지배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던 문화를 직수입하는 동기가 되었다. 그리하여 제주도는 13~14세기에 역사상 가장 큰 수난기를 겪게 되지만 동시에 줄기찬 문화의 변동기를 맞이하게 된다.

지금 어디를 가도 제주도의 구석구석에 삼별초의 사연이 엮히지 않은 곳이 없다. 또 제주문화의 구석구석에 배인 몽고문화를 떨구어낼 수도 없다. 제주도의 문화를 이해하고 제주도의 역사를 인식하는데 있어 이 두 사건을 빼놓을 수는 없다.

그러나 7백년이 흐른 지금 그때의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.

최근까지 부분적으로나마 자취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애월(涯月)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내(高內) 북촌(北村) 동복(東福) 온평(溫平) 태흥(泰興) 남원(南元) 등지에서 볼 수 있었던 환해장성(環海長城) 유적이었다. 그러나 그것마저 최근에는 해안 일대에 들어선 양식장 등 여러 시설물에 이용되어 거의 소멸되고 말았다.

명월성(明月城)·애월성(涯月城) 전적지 등이 있지만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성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뒤에 개축된 성들이다. 당시의 유적으로 오늘에까지 남겨졌던 것은 북제주(北濟州)군 애월(涯月)읍 고성(古城)리의 향파두성(缸坡頭城) 유적 정도였다고 할 것이다. 그것도 석성으로 축조되었던 내성을 비롯하여 당시의 모든 시설들은 모조리 없어

지고 그 일대에서 산전되었던 돌쩌귀 기와 토기 쪼가리 등 유물을 제외한다면 유일하게 외곽을 두른 토성(土城) 만이 보존되어 오늘에 이르렀다.

한시적 복원사업

삼별초(三別抄) 항쟁의 본거지였던 항파두리에 그나마 남아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다고 할 것이다. 이 토성에 대하여는 1970년대 초반부터 부분적으로 보수 사업이 추진되다가 마침내 1977년 항몽유적지(抗蒙遺蹟地) 정화사업 때 본격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. 지금 볼 수 있는 항파두리(缸坡頭里) 유적 보수사업은 1977년 봄 박정희(朴正熙) 대통령령의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추진된 사업이었다. 1977년 7월 21일에 착공, 1978년 4월 30일에 준공을 보기까지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기간은 10개월도 채 되지 않는 불나는 사업이었다.

이 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는 7억4천만원이 투입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하귀(下貴)에서 유적지까지 6km의 진입로 포장사업(2억3천6백만원)과 제주(濟州)에서 유적지에 이르는 일대의 환경정화사업(2억7천1백만원) 등에 투입되었다. 실제 유적 경내 조성사업에는 고작 2억3천8백만원이 투입되었을 뿐이었다.

따라서 이때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항몽순의비(抗蒙殉義碑) 건립과 순의문(殉義門) 관리사 휴게소 화장실 등 부득이한 이용시설이었으며 토성 일부를 보수하는데 그쳤다. 도는 애초에 대궐을 비롯한 주요시설의 복원 등 방대한 사업계획을 정부 문화재 당국에 올렸다. 그러나 사

업 자체가 한시성을 띤 단기 사업이었고 예산도 한계에 부딪쳐 결국 모든 것이 좌절되고 말았다.

나는 지금부터라도 이 유적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다. 그리하여 일부 복원을 포함하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사실 이 사업은 비(碑) 하나 세워놓고 끝내버릴 사업은 아니었다. 마땅히 후속 사업이 이어져야 했다고 할 것이다.

지금 이 시점에서 당시에 있었던 모든 시설을 고스란히 재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. 그러나 상징적인 최소한의 시설들만이라도 복원해 놓아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한다. 나의 생각으로는 당시 4대문 가운데 우선 북문(北門)과 남문(南門)은 다소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현 도로상에 복원해 놓아야 한다고 믿는다. 그리고 내성을 축조하고 대궐과 후방소 등 상징적인 건조물들을 복원해 놓았으면 한다.

소중한 역사의 현장

그리고 호수 병사 요지 연무정 활터 사정 웅성 장대 등도 복원할 수 있었으면 한다. 북제주군(北濟州郡) 당국은 그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하리라고 보며 이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추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고 믿는다.

이 같은 복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향과두리 유적지는 고려시대의 전적지로서 참으로 소중한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며 다시없는 사적 자원이요, 문화관광 자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.²⁷⁾

27) 신문에는 ‘할 것’으로 되어 있다. 필자가 ‘할 것이다.’로 수정 삽입함.

제주도를 물사람들에게 산이나 바다를 보는 걸 구경거리 섬으로만
들어서는 안 된다. 수천 년 동안 이어 살아온 제주인(濟州人)들의 역사
와 문화도 새겨줘야 한다. 그것은 소멸해버린 현장을 되살려서라도 역
사의 증언으로 지탱해 나가야 할 것이다.